

이렇게 각 지자체가 출원한 농산물 상표들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자체가 직접 상표를 개발 및 출원하고 육성하여, 소속 농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 ‘공동브랜드’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통합 과수브랜드 'daily'는 전국 점유율이 높은 자두, 복숭아, 포도, 사과 4개 품목 중 품질이 우수한 상위 50%에만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여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공동브랜드'이며, 그 외 농협중앙회의 멜론 브랜드 'K-melon'은 전국 연합브랜드로 국내 유통시장의 1위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하여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공동브랜드'이다.

또한, 김제의 '지평선'은 당초 '쌀' 브랜드로 상표등록된 것으로, 점차 다른 농산물에도 '공동브랜드'로 확대 사용되어오다, 지금은 지역축제행사 브랜드로도 발전하여 김제시의 대표 브랜드에 자리한 특색 있는 상표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앞장서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를 상표출원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한 농민이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서 성공시키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고,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확대 및 마케팅에는 '공동브랜드'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출원 현상에 대해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제는 ‘농산물의 브랜드화’, ‘브랜드화된 농산물’이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지자체들이 주도하는 농산물 관련 ‘공동브랜드’ 상표출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사무관 문종배(☎ 042-481-8202)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자체의 연도별 농산물 상표 출원현황

(2007~2017.6)

출원 년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6	계
농산물 상표 출원건 (A)	490	436	505	515	361	387	310	301	449	446	140	4,340
전체 상표 출원건 (B)	1,376	1,652	1,762	2,024	1,264	1,425	1,277	1,041	1,437	1,756	674	15,688
비율 (A/B)	35.6%	26.3%	28.6%	25.4%	28.5%	27.1%	24.2%	28.9%	31.2%	25.3%	20.7%	27.6%

농산물 상표의 주요 다출원 지자체

(2007~2017.6)

순위	광역시자치단체	출원건수	시군	출원건수
1	전라남도	857	안동시	170
2	경상북도	848	울진군	112
3	강원도	500	제주시	106
4	충청남도	420	담양군	104
5	경기도	407	순천시	85
6	경상남도	349	부안군	81
7	전라북도	338	양양군	80
8	충청북도	187	무안군	80
9	제주특별자치도	138	서산시	73
10	인천광역시	85	신안군	71

지자체의 대표적인 농산물 공동브랜드

			
여주시	파주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천안시	음성군	부여군
			
김제시	무주군	고창군	나주시
			
해남군	김해시	창원시	김천시
			
울릉군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농협중앙회